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전통적 가치의 재 발견      성경: 전도서 12장 1-2,13-14절

Tag: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12:1-2)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12:13-14)

요즘 나는 출애굽기를 읽고 있다.

그런데 새롭게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들이 많다. 어려서부터 익히 알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왠지 전통적인 말씀이라 그렇게 새롭거나 의미심장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습관처럼 지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렇다고 딱히 그 전통을 싫어하거나, 그 가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의심을 품어본 적도 없다.

그러나 다시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아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 하셨구나. 그때 이 말씀을 강조하셨구나. 내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다. 하는 다짐이 속에서 솟아났다.

그러는 순간, 내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하는 감동이 들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전달되는 것 같았다.

사람에게는 별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그것을 말하고 부탁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당신의 말이 나에게 동기를 유발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동기유발을 당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있다.

물론 과거의 말씀들은 오늘날 새롭게 재해석하지 않으면 곤란한 것들도 많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 시대정신에 어긋나기도 하고, 심지어 기독교적 가치관에 어긋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불을 피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광야생활에 해당하는 말인데, 밥을 지으려고 불을 피우지 말라는 뜻이다.) 당시에는 불을 피우는 일이 노동이었다. 요즘처럼 스위치 누르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일하지 말라는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안식에 집중하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심지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는 말씀도 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나라 형법에 위배되므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지킬 수 없다.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말

씀의 엄중함을 기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핵심정신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새로운 조항들을 만들었고, 안식일에 관한 조항들은 점점 많아졌으며, 그로 인해서 안식일에 관한 정신이 변질되고 말았다.

예수님은 오셔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셨다. 가장 정확한 말씀의 정신을 일깨우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안식이 되셨다.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8-30)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안식이 되며, 평안이 된다.

그래서 인생 초년생인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영혼이 안식을 누린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신다.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12:1-2)

특히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하신다. 모든 인생에게는 곤고한 날이 기다린다. 아무리 그런 날이 없더라도 나이가 늙으면 그것 때문에도 곤고한 날이 나에게 이른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다.

2절에 보면 그 날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해 놓으셨다.

## 2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보통은 비가 온 다음에는 햇빛이 난다. 그런데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난다. 또 비가 온다는 뜻이다. 병이 들어 고생하다 병이 나았는데, 다시금 곧 이어 또 다른 병이 발견된 경우이다. 그런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도 위기가 닥쳤다.

오늘 한국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가 핵심이 아니다. 과거 IMF사태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견뎌냈다. 당시에 어려움에 휩쓸려 고통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렇게 쓰러져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여파가 본격화 된 2011년부터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처음으로 밑도는 경기침체 속에 빠져들었다. 그 후 어떠한 대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지금까지 근10년을 지내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4차산업, 글로벌 환경변화(미중갈등), 제조업의 부진, 386세대의 갑질 등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미 70여 년 전부터 불구가 된 한반도의 오랜 고질병이 드디어 악창이 되어 불어터졌기 때문이다. 남쪽에서는 우파 집권 시기인 2008년 광우병사태를 시작으로 세월호 사건을 거쳐서 탄핵정국에 이르기까지 집요한 정권 흔들기가 나라를 마비시켜왔고, 북쪽에서는 과거 남한 정부로부터 받은 원조와 미국의 등을 쳐 먹으며 얻는 원조, 그리고 주민들의 핏줄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으면서 만들어낸 핵무기가 드디어는 그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의 칼춤도 바야흐로 맥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온 세계가 그 종말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주에는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전교조 교사가 이념교육을 하는 것들을 몰래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교사의 말투에 놀랐는데, 그도 매우 비관적인 말투였고, 학생들이 관심도 없고 떠들어도 듣지도 않을 것이라는 느낌으로 읊조리고 있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를 둘러 보면서 양 진영을 오가며 느낀 것은 뭐랄까, 좌파들은 더 화려하지만 왠지 동원된 느낌? 청중들은 넓은 잔디에 깔개까지 깔고 앉아 있었지만, 연단에 집중하지 않고 각자 휴대폰만 쳐다보고 딴짓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우파의 집회는 모두 열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각화 현상이다. 심지어는 팽수나, 던질까 말까와 같은 지루함도 이목을 끈다. 정보의 바다인지 정보 쓰레기의 저주인지 분간하기 힘든 인터넷, 믿을 수 없는 통계들, 속내가 보이는 정치인들, 뻔뻔스럽거나 표독스러운 대변인들, 괴상해진 사법판단, 버젓한 이단들, 힘없는 대형교회, 극우단체가 되어버린 광야교회, 힘겨운 이념교육, 망할 수 없는 영세업자, 괴물이 되어버린 노조, 동물정당, 식물 국회, 무기력 뻔뻔 청와대, 기생충 교수, 철밥통 사자돌림, 초보자도 한몫, 명품 실업자, 세계최고 서울지하철, 약진하는 LG삼성, 걱정없는 먹방, 잘나가는 KPOP... 영웅의 시대는 갔다. 과연 정권이나 이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미래는 예측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당신의 미래는.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벤치마킹해야 하겠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삶을 신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묻는다. 전통적 가치를 대체할 새롭고 바람직하고 정의로운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전통적 가치와 비견해서 더 나은 가치인가?

물론 이스라엘 원리주의자들처럼 현실을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사회를 문자적이고 원리적인 사회로 만들어놓고 생활하고 있다.) 유행은 금방 지나가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수천년을 살아왔는데, 당신

들은 그렇게 몇 년이나 살아 왔는가? 앞으로 그렇게 몇 년이나 살 것인가?

그들의 질문에는 할 말이 없지만, 우리는 적어도 전통적 가치관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오늘에 어떻게 적용해야 가장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지를 성실하게 연구한다.

새해에는 더욱 강력하게 신학하고 경건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아멘.